

굿바이 학부모, 졸업 잔소리!!

Say goodbye to parents,
Graduation, nagging!!

글. 정이숙
Jeong, Yisuk
카피라이터

어머니) 바빠도 끼니는 건너뛰지 말어!
아버지) 참, 큰 애는 학교 갔는가?
어머니) 아이고 여휴, 내 정신 좀 봐. 아이고 참 아이고.
아버지) 아 참, 사람 참...
엄마 문자) 일어났냐? 학교는? 얼른 가, 야.
아들 혼잣말) 엄마... 나... 교수인데...
학생) 교수님, 안녕하세요?

엄마) 아들, 요즘 무서운 사람 너무 많다! 얼른 들어와 얼른!
아들 혼잣말) 무서운, 사람?
연습 상대 후배들) 형 찰 거면 빨리 차요, 무서워 죽겠네.

엄마 전화로) 맨날 멧 낸다고 어!? 얇게 입으니까 어? 아픈 거 아니야!
아프면 얼른 병원 가! 병원!
딸 혼잣말) 나 지금도 병원이야.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무엇일까? 아마도 '밥 먹어'일 것이다. 아이들이 자라, 나가서 먹는 일이 많아진 다음에는 '밥 먹었어?'로 변했지만, 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언제나 아이의 밥이다. 스스로는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16시간씩 굶기도 하고, 툭 하면 고구마나 감자 한 알, 삶은 달걀 두 알로 저녁을 때우면서도 아이가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않으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배고프면 어렵히 알아서 먹을까 알면서도, 무조건 반사처럼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내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어릴 때는 '네'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알아서 할게요'이다. 엄마의 관심은 잔소리로 치부하고 귀찮은 기색이 역력한 말투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 처음부터 어른이었던 것 같은 태도다. 저희가 지난 어린 날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 눈에는 보호해야 하는 어린아이로 생각된다는 것을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나도 몰랐다. 그러니 내 아이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다. 그래도 살갑게 구는 다른 집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부러운 심정이 슬그머니 고개를 든다. 과장이 좀 섞이긴 했지만 나 같은 부모 마음을 보여주는 광고를 보았다. 광고에는 대학 교수가 된 아들에게 학교 가라고 문자하는 노부모가 나온다. 크고 힘센 미국이종격투기(UFC) 선수 아들에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많으니 집에 빨리 오라고 성화하는 엄마와, 의사인 딸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걱정하는 엄마도 나온다.





정관장_추석 선물_인터넷 바이럴_2021

지난 추석 즈음에 인터넷에 올라온 정관장의 추석 선물 광고다. 영상은 이어서 부모의 걱정을 듣는 다 큰 어른들의 증언을 보여준다. 내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렸다. 여든 넘은 우리 엄마, 아직도 전화할 때마다 밤길 조심해라 늦게 다니지 말라고 이르신다.

김유진(30)선생님) 저희 엄마는 저한테 커피 더 크면 마시라고 그러세요.
벌써 서른인데 언제까지 더 커야 할까요?
서경남(26)대학생) 오늘 아침에도 선풍기 틀고 잤다고 아빠한테 혼났습니다.
김민덕(39)직장인)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하시던 잔소리를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의 잔소리가 좀 그림기도 하고...

Na) 늘 애정 가득 잔소리하시는 부모님께
올 추석,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딸) 이거 먹고 잔소리 더 해 주세요, 이 여사님!
Na) 행복한 잔소리, 우리 모두 건강하잔 소리!
이번 추석에는 건강한잔 소리로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자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려 한다. 당연한 이치다. 부모와 성장한 자식 사이에는 서로 적절한 거리와 적당한 무관심이 필요하다. 아예 엄마로만 살고 있는 인생을 졸업하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광고도 있다. 몇 년 전 온에어 된 삼성화재 홍보영상이다. 광고의 주인공은 중학교를 졸업하는 자녀를 둔 엄마들이다. 졸업을 앞둔 아이들은 깜짝 행사를 준비해서 학교로 엄마를 초대한 뒤 '고맙다, 사랑한다'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고백을 한다. 그리고 이제 가족만 위하지 말고 자신을 챙기고 이름을 찾으라며 「엄마 졸업장」을 수여한다. 감동의 졸업장을 받은 엄마들에게 자기소개를 다시 부탁하자, 광고 첫머리에서는 '누구 엄마'라고 대답하던 이들이 조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얘기한다.

엄마1) 안녕하세요, 저는 오병욱 엄마입니다.
엄마2) 저는 3학년 1반 김수정 엄마예요.
엄마3) 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나? 저는 아들 딸 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자막) 엄마의 자기소개에는 자신의 이름이 없다.
딸O.V)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나의 엄마로, 오빠의 엄마로 때론 아빠에게도 엄마로 사느라 자신의 이름으로는 살 시간이 없었다는 걸.

자막) 아주 특별한 졸업
2015년 1월 21일 운중중학교
딸O.V) 졸업을 며칠 앞두고 작은 전시회를 마련한 우리.
그 특별한 전시회에 엄마들을 초대했다.
졸업전시회라는 말에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신 우리 엄마.
엄마, 예쁘잖아. 평소에도 좀 꾸미라니까.
엄마 어때? 우리가 학교생활 어떻게 했는지 많이 궁금했지?
처음 교복을 입고 어색해하던 우리가 벌써 졸업을 하게 됐어.
모두 엄마 덕분이야. 그래서 엄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너무 놀라지 마.
전시물 자막) 엄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벌써 졸업이네요.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니까
우리만을 위해 살던 엄마도 이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녀1) 사실 오늘 우리 졸업전시회가 아니야.
그동안 힘들었던 엄마를 위한 엄마 졸업식이예요.
저 때문에 엄마가 3수 해서 붙은 공무원을 포기했던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녀2) 힘들어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엄마도 같이 아파해 줬잖아.
그 때 엄마 모습 보면서 너무 죄송했어.
자녀3) 이제는 우리만 좋은 것 해주려 하지 말고 엄마도 꼭 좀 챙겨.
자녀4) 엄마 예전에 아팠을 때 수술 끝나고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다는 듯이 웃어줬을 때...
자녀5) 우리 걱정 조금만 줄이고 엄마 몸도 잘 챙겨.
너무 착한 우리 엄마, 졸업 축하하고
엄마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도 쓰고 사진도 찍고 하길 바라. 엄마 사랑해.

자녀들) 엄마 졸업장
이 어머니는 지난 16년 동안 이승혁 학생의 어머니로서 한가족의 어머니로서 그 본분과 책임을 다함에 한 순간도 부족함이 없었기에 엄마 졸업장을 수여함.

자막) 졸업을 축하합니다!!
 엄마 졸업, (조종희) 시작
 엄마 졸업, (이진영) 시작
 엄마 졸업, (이선명) 시작
 엄마 졸업, (신정숙) 시작

딸(O.V) 언제나 가족이 먼저였던 엄마.
 엄마 이름 잊지 말고, 하고 싶은 것들 미루지 말고 아픈 곳도 무심히 여기지 말고...
 엄마로 사는 시간만큼 엄마 자신을 위한 시간도 소중하니까
 이제 엄마 자신도 살피고 돌봐주세요.

Na) 다시 한 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엄마1) 김혜진입니다.
 엄마2) 조종희입니다.
 엄마3) 김수정 엄마고요, 제 이름은 이진영입니다.



삼성화재_ 아주 특별한 졸업편_인터넷 바이럴_2015

지난 8월 27일 막내가 대학을 졸업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졸업식에 로그인하지 않았으니 총장 축사도 졸업장 수여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친구나 친척들의 떠들썩한 축하도 사라진 풍경이었다. 졸업 가운을 입고 학교에 가서 사진 몇 장 찍는 것이 졸업 의식의 전부였다. 제도가 정해주는 틀 안에서만 머물다 세상으로 나서는 일이 나는 두렵고 막막했는데,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 엄마는 온갖 상념에 마음이 쫓는데, 본인은 아쉬운 내색 전혀 없이 신나게 교문을 나섰다. 대면과 비대면, 겨울 졸업과 코스모스 졸업! 아이는 나와 180도 다른 형식의 졸업을 했다. 그리고 취업대신 창업이라는, 나와는 완전히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 참견도 걱정도 부질없는 일이라 지켜 보고만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막내의 대학 졸업을 계기로 나도 스스로에게 졸업장을 주기로 했다. 유치원부터 17년 이상 계속되었던 등록금 걱정, 출결 걱정, 시험과 숙제, 학원 걱정에서 벗어나는 「학부모 졸업장」,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엄마가 더 괴로운 참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잔소리 졸업장」!

지금은 엄마가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 있고, 훗날엔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내 아이들이 늘 바르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커다란 행운보다는 작은 기쁨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학부모를 졸업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기도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FYgnRGIZU>
 정관장_추석 선물_인터넷 바이럴_2021_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wtg_Wmra70
 삼성화재_ 아주 특별한 졸업편_인터넷 바이럴_2015_유튜브 링크



정이숙 카피라이터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카피라이터로 광고와 인연을 맺었다. 롯데그룹의 대홍기획을 시작으로 한화그룹의 한컴, 종근당의 벨컴과 독립 광고대행사인 삼페인과 프랜티브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로 일했다. 지금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의 CD로 퍼포먼스 마케팅의 세계에 발을 담고 있다. 지은 책으로 <응답하라 독수리 디방>(2015), <광고, 다시 봄>(2019), <똑똑, 성교육동화>시리즈(2019) 12권, <김민준의 이너스페이스>(2020)가 있다. abacaba@naver.com